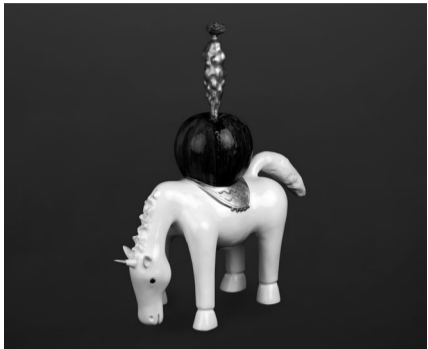


# 담양 소아르떼로 자리 옮긴 '갤러리봄' 재개관 눈길

2016년 광주 예술의거리서 개관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 활동 이어와 전남서 미술시장 활성화 등 목표 26일부터 조의현 초대전 첫 오픈



조의현 작 '화려한 선물 I'. 갤러리봄 제공

“지역 넘어 전국 스타작가 작품 소개하는 갤러리로 운영하고 싶어요.”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에서 전시를 이어온 갤러리봄이 최근 담양 복합예술단지 소아르떼로 터전을 옮기고 26일부터 재개관 기념 조의현 초대전 '화려한 선물'을 개최한다. 조의현 교수(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의 이름을 걸고 4년 만에 열리는 전시로 그의 신작 25점을 감상할 수 있다.

갤러리봄은 2016년 광주 예술의거리에서 문을 연 이후 기획전, 초대전,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 등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문화관광도시 담양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의현 초대전을 시작으로 유명작가를 소개하고, 유명작가의 전시를 개최하는 등 전남 미술시장 활성화에서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최정화 갤러리봄 대표는 “광주 예술의 거리에 있을 때는 최근에 와서야 아트페어 참여하는 식으로 활동을 이어왔는데, 담양에서는 전시기획에도 집중하려 한다”며 “특히 소아르떼에 있는 9개 갤러리 중에서 유일한 상업 갤러리로서, 지역작가뿐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는 유명작가

들의 작품을 지역 아트씬에서 선보이고 미술애호가들의 발길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담양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고민은 많았지만, 좋은 작품을 소개하는 일에 지역적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렇게 소아르떼를 직접 구상한 조의현 작가가 제안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조의현 초대전으로 재개관을 하게 됐다. 조의현 초대전이 끝나면 이어지는 전시는 두 차례 예정돼 있고 대구와 광주 아트페어 참여까지 벌써 올해 일정을 꽉 채웠다.

갤러리봄이 위치한 소아르떼는 담양의 대규모 복합예술단지, 지난해 4월 조성이 완료됐다. 조의현 교수가 오랜 기간 구상해온 공간으로 법인 설립부터 공사, 분양까지 모두 민간에서 진행했다. 담양 관광단지 메타프로방스에서 500m 떨어져 있으며, 1만5000여평에 이르는 공간에



담양 소아르떼에 위치한 '갤러리봄' 전경.

분수 광장, 상가, 공방, 타운하우스, 아트센터, 미디어아트센터, 갤러리존이 모여 있다.

갤러리봄 재개관을 기념하는 조의현 초

대전 '화려한 선물'은 자신의 작업이 많은 이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할 수 있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다. 갤러리 전시로 규모는 작지만, 교단에서

후학양성에 집중해온 조의현 작가가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오랜만에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라 오픈 전부터 미술애호가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작가는 유년의 기억과 일상적 순간에서 발견되는 해학적 유티에서 영감을 받아 브론즈와 테라코타를 무채색 질감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초대전에서 여기에 현대적인 채색 기법과 친숙한 레디메이드 소품들을 일부 추가해 반전과 유티의 미학을 더욱 유쾌하게 전달한다.

전시는 크게 '여인상' 시리즈와 '선물' 시리즈로 구성된다. 여인상 시리즈에서는 화려한 색채와 유티 있는 표정·포즈가 결합된 작품들을, 선물 시리즈에서는 행운의 동물 유니콘과 아름다운 꽃, 풍요의 상징 사과를 매개로 선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하는 작업을 만날 수 있다.

최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조의현 작가의 창의적 세계와 그가 진행해온 예술적 탐구를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작가의 작품이 무더운 여름날 보는 이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갤러리봄은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84-72에 있다. 전시 오픈은 26일 오후 6시 30분에 소아르떼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8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4명의 광대가 들려주는 두 아이의 모험

뮤지컬 '달님이 주신 아이' 공연 내달 24~25일 ACC 어린이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은 2024년 ACC 어린이극장 공동기획(렛츠 플레이) 세 번째 작품으로 오는 8월 24~25일 이들 동안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뮤지컬 '달님이 주신 아이(사진)'를 선보인다.

'달님이 주신 아이'는 버림받은 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설화 속 인물 '바리데기'와 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떠나고 남겨진 아이 '동이'가 등장한다. 두 아이를 '바리데기'가 아닌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진 아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 진정한 독립과 승리를 성취해내는 두 아이의 여정과 성장을 통해 어른 관객은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어린이 관객은 스스로가 무한한 힘으로 삶을 마주할 수 있

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다.

뮤지컬은 광대이자 이야기꾼인 4명의 배우가 극 중 여러 등장인물로 수시로 변신하듯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스토리씨어터(story theater)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하게 변형되는 의상과 소품의 빠른 전환으로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화려한 제작진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시나리오를 담당했던 이소영 작가가 대본을 쓰고, '빨래' 등 다수의 창작 뮤지컬 곡을 만든 민찬홍 작곡가와 '변개맨 시리즈'의 한승훈 안무가가 노래와 춤을 만들었다.

이번 공연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5일 오후 2시 등 총 3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000원이다. 4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예매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 슈만·브람스...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공연

내달 2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브랜드 공연 '체임버 시리즈 V'가 오는 8월 21일 오후 7시 30분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향 비올라 수석 엄광용, 클라리넷 수석 주민혁, 피아니스트 김연이 출연한다. 불후의 음악가 슈만, 미요, 브람스, 프랑세의 곡을 연주한다.

첫 무대는 '슈만, 옛이야기 op.132'로 시작한다. 낭만주의 시대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음악 평론가였던 로베르트 슈만이 1853년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로 작곡한 동화 이야기다. 그림이 있는 4권의 동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환상적인 옛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 담겨있다. 특히 비올라와 클라리넷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옛이야기' 이 작품은 강한 울림을 간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무대는 미요의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이다. 유대계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의 프랑스 클래식 작곡가 다리우스 미요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이 곡은 1936년 미요가 장 아누이의 연극 '수하물 없는 여행자'를 위해 작곡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퇴역군인이 기억상실증으로 고통받는 마지막 장면에서 연주된 곡으로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장마다 느낌이 다르다.

이어 '브람스의 두 개의 가곡 Op.91'을 연주한다. '고요한 그리움(Gestilte

Sehnsucht, Op.91-1)', '자장가(Geistliches Wiegenlied, Op.91-2)' 두 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원래는 성악, 비올라, 피아노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연주회에서는 비올라, 클라리넷, 피아노 삼중주로 연주한다. 아다지오 에스프레시보(adagio espressivo, 느리지만 감정을 풍부하게)로 시작되는 비올라의 율조리는 듯한 음색으로부터 내면의 응어리를 표출하는 듯 상승하는 선율이 지난 후 알토의 노래가 시작되는, 브람스다운 명곡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연주되는 작품은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장 프랑세의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이다. 프랑세가 자신만의 감성적이고도 우아한 개성을 신고전주의적인 명료한 서법을 통해 표현한 곡으로 그의 음악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곡이다.

티켓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석 1만 원이며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배우는 '전통문화예술 강좌'

광주문화재단 내달 7일 모집 전통음악·음식 등 14개 강좌

광주문화재단은 전통문화관에서 진행하는 '2024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을 8월 7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통문화관 전통문화예술강좌는 광주 시 지정 무형유산 가·예능 보유자에게 직

접 기예를 전수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생들의 수련도에 따른 초급반과 중급반, 그리고 대상층별로 일반과 청소년으로 구분해 수강생 맞춤형 강좌로 구성했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5강좌(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판소리교본 △가야금 병창(판소리, 민요) △전통음식 2강좌(우리아이 IQ·EQ 높이는 영양음식, 생활음식) △맹화 △미니장구만들기 △민화 △

청소년 가야금병창 2강좌 등 총 14개 강좌이며, 각 강좌마다 15회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25일부터 8월 7일까지로 가능하고 강좌당 선착순 15명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누리집과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수강료는 10만원. 재료비는 별도.

하반기 강좌는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5주에 걸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누리집(www.gt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